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3. Vol. 310

기획특집_ 봄철, 양양군의 산불감시 24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발작



두통



피로감



발열



오한



근육통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추가 백신 접종 계획>

- 접종기간 : 2021년 4월 ~ 11월
- 예방접종센터 : 일출예식장
 - ※ 냉온방 효율성 및 접근성, 도민체전 일정을 감안하여 선정
- 접종대상 : 만18세 이상(전 군민 순차 무료접종)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봄철, 양양군의 산불감시 24시
- 08 이슈엔피플_ 이경현 물치어촌계장
- 11 마을가는 길_ 양양읍 남문3리
- 14 맛있는 양양여행_ 사진으로 맛보는 양양의 음식이야기



낙산사 매화

의기양양

- 16 YANGYANG NEWS
- 19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인구해변
- 20 의정소식_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양양은 도원경의 별천지가 아니런가?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10호

| 발행일 2021년 3월 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omtom777@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봄철, 양양군의 산불감시 24시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심하게 불었던 2월 중순에는 양양·정선 등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피해는 물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해안에 ‘눈 없는 겨울’이 장기화하면서 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3월 첫날 양양에 30cm가 넘는 눈이 내려 일시적으로 해갈됐지만 산불발생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는다.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 6개 시·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 산불방지 체계를 유지한다.

24시간 산불방지 감시체계로 산불예방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때, 주민들의 주의와 협조는 더욱 필수적이다. 봄철 산불예방은 지역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이자 보호책이다.

산불감시체계의 스마트화로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

봄철에 양양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서 유독 산불 발생이 잦은 이유는 가을철보다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건조한 기상이 이어지는 데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국지적 강풍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작은 화재가 중대형 산불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올해는 특히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산불 방지 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양양군은 분청 및 읍·면 산불상황실 운영과 감시카메라 및 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의 모니터링 요원 배치, 산불 진화차량 및 산불진화자원 관리요원 상시 운영 등 더욱 강화된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산불감시초소 21개소, 산불감시탑 11개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개소를 설치하고 산불진화대원 58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 중이다.

특히 인화물질 관리 대원 8명이 주택에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주택 주변 정리 등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불감시원 104명의 위치 파악을 위해 위치정보기(SMART GPS)를 공급해 현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무엇보다 현장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124개리 이장단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 26개 사회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순찰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불감시원과 이장단은 해당 마을의 소각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화목보일러 등 나무 연료 사용가구를 수시로 방문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는 책임 활동구역을 자체 설정하여 마을별 순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산불예방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로 빠르게 대처

24시간 무인감시 카메라를 통해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화해 대형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진화체계를 갖추고 있다.

양양군은 인근 속초시, 고성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해 운용하는데, 산불이 발생 시,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운영해 초동 진화로 빠르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화차량 6대 등 총 32종, 2,000여 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하고, 2월부터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59명으로 확대해 24시간 운영한다.

이후 중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육군 제8군단, 102여단 등 군 병력 1,200명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민·관·군이 합동으



로 진화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전문화된 지상진화대가 편성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공중과 지상 간의 산불진화 공조체계도 산불 피해 최소화에 중요한 요소다.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이후 산불발생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산불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의식과 경계가 가장 중요

산불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주민들의 경계와 의식이 중요하다. 그동안 양양군은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강화된 제도를 마련해 강조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산불예방에 대해 일깨우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각금지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산행인구, 버섯·약초 채취자,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무단 입산이나 산림인접지역 불 놓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의 관리를 강화한다. 산림과 연접된 사업장인 숲 가꾸기, 도로, 펜션, 암자, 골프장, 스키장, 광산, 채석장 등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모닥불 피우기, 취사행위 등 위험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단속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입간판에 좌표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해안은 매년 봄철이면 산불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산불방지 대책으로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산불방지협의회 등을 활성화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산불예방 의식과 관리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양양군의 체계적인 대책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한 봄맞이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20.12.23 조례 제27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5월, 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
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② 산림녹지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제2736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치리의 안전한 미래를 디자인하다



땅을 살피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사는 육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도 이제는 관리하고 육성해야만 매년 수산물 먹거리 생산이 가능하다. 남획과 포획으로 바다 어장을 고갈시키지 않기 위해 어장관리와 방류 사업 등이 가장 중요한 어촌의 역할이다. 또한 판로 확보를 통한 어민들의 소득증대 역시 가장 큰 이슈이다. 물치리는 탄탄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의 자원을 지키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다. 그 중심에 이경현 물치어촌계장이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라

물치리는 설악산으로 가는 입구에 자리한 어촌마을로, 활어회센터가 운영돼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 주위의 항구들이 경쟁적으로 생기면서 물치항을 찾는 관광객도 줄어드는 추세다. 물치리가 성황을 이루었던 2014년에는 매출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절반쯤에 그치고 있어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경현 어촌계장은 세 차례 연임을 통해 물치리를 적극 홍보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

“농촌처럼 어촌도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점점 경쟁력을 갖춘 항구가 늘면서 특색 있게 강점을 키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11년 동안 도루묵축제를 하며 홍보와 판매를 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요.”

물치리는 지난 2009년부터 동해안 겨울철 대표 어종인 도루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도루묵축제’를 열었다.



2019년에는 포토존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변화를 꾀함으로써 매출이 평년보다 40% 이상이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를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판로가 막혀 우려가 컸었다. 고심 끝에 11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를 통해 육수를 담은 캔과 손질한 도루묵을 패키지화한 간편 도루묵찌개를 상품화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드라이브스루 판매망 구축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직거래를 통한 판매 효과와 판로 확보를 거두었으니, 시대 변화에 맞는 발 빠른 대처가 효과를 본 셈이다. 물론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상품개발을 하기 위해 이경현 어촌계장은 그 어느 해 보다 분주했다.

물치리를 지키고 알리는 홍보맨을 자처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치리 바닷가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열었다. 물치리 해변의 맑은 모래와 바다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환경보호캠페인 축제인 ‘모래야 고마워!’라는 이색적인 축제를 열었는데, 물치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공감하고 홍보하는 데 작지만 큰 기회가 되었다.

마을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기획과 시도에 열정적인 이경현 어촌계장은 어촌계의 신뢰와 동참을 이끌어내며 물치리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제가 어촌계장을 맡으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투명성과 민원 해소라는 점이에요. 크고 작은 사업을 하면서 투명하게 예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민들 간에도 서로 이해타름도 꽤 있었어요.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민원 해결이 된 셈이죠. 이제는 다들 일이 없지요.”

물치 어촌계는 25명의 계원들의 단합과 역할이 활발하다.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이경현 어촌계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활어장 신축과 어촌뉴딜 300 사업 유치를 손꼽는다. 1999년에 지어진 활어회센터는 물치리의 명성에 기여를 해왔지만,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편이 크고 비효율적인 구조여서 활어장 신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물치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사업 유치를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치리의 미래에 희망을 심다

3월부터 물치리는 해삼 채취로 활기를 띤다. 매년 해삼과 어패류를 방류해 자원이 고갈되지 않게 관리해 오고 있는데 3월부터 본격적인 채취로 활어장이 풍성해진다. 또한, 지난 겨울 생산한 도루묵을 건조하고 육수를 냉동시켜 간편 요리로 만든 상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선물용 포장을 만들어 판로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물치리는 현재를 가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등 기대가 크다.

이경현 물치어촌계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방안을 모색했듯이, 물치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주민들과 화합하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며 각오가 대단하다.

지난 7년 동안 어촌계를 맡아 노력해온 결과, 2019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지역수산물 축제인 도루묵축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어장 살리기 환경개선과 해삼 방류 등을 통해 수산업 어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공로지만 이경현 어촌계장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손을 젓는다. 그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지키는 일이니 열심히 할 뿐이라면서.

“어촌도 농사입니다. 마을어장 관리와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자원을 지켜가야 하는데 어촌계원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이뤄가는 일이지요.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을을 지켜가는 건 마을 주민들의 힘이거든요.”

농촌이나 어촌은 고령화되고 점점 축소되어 위기라는 말을 하곤 한다. 특히 어촌은 자원고갈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살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경현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단합해 미래를 위한 준비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는 물치리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성공 비결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낸 주민의 힘
도시재생사업의 물꼬를 튼 남문3리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 양양읍 남문3리

양양 시내에서 '남문3리'를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담배꽁초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화단의 행렬, 저절로 눈길이 가는 알록달록한 벽화들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곳이 남문3리다. 많은 수고와 정성이 깃든 정갈한 마을 풍경은 모두 주민들의 힘으로 일구어낸 것이라고 한다. 혼자였다면 이루어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변화는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남문3리에 새바람이 불다

약 300명 주민의 보금자리인 남문3리는 전통시장, 상가, 병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으로 주차난과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하지만 시내권에 자리한 마을 특성상 이웃 간의 교류가 적다 보니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마을의 현안과 발전을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

마을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다. 그해 마을 최측 여성 이장으로 선출된 최선남 이장은 주민들이 있어야 마을과 지역도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먼저 주민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모이자,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마을 사업을 해보기로 했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 6월, 남문3리 주민들은 ‘더불어 행복한 마을, 남문3리’라는 슬로건 아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도로 주



변의 유희공간에 꽃밭을 조성하고, 양양초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목의 노후 건물에 벽화를 그려 마을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꾸는 등 주민 중심의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에는 ‘낮에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주민들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이른 아침 마을 주변 청소하기, 내 집 앞 내가 치우기, 주말 쓰레기 배출 자제 등을 실천하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주력했다.

덕분에 남문3리는 2019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마을과 2020년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마을로 각각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특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마을 시상금에 마을기금을 더해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일은 더욱 뜻깊은 성과로 기억된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의 경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형성된 것이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경험한 주민들은 이제 마을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리더십과 주민 화합의 시너지

주민들은 남문3리가 이렇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최선남 이장의 리더십과 추진력 덕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간 소원했던 주민들의 관계를 단번에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초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았고, 최선남 이장은 주민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선진지 견학부터 나섰다. 장거리를 오가는 동안에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주민 간의 관계는 이전보다 돈독해졌다.

또한, 30년 만에 다시 부녀회를 조직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국수를 삶기 시작하면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해에는

장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요가 수업, 노래 교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다고 한다. 처음 이장에 취임했을 때 ‘여자가 무슨 이장이냐’며 타박을 하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손수 김장을 담가 가져다주기도 하고 최 이장 집 대문에 나물이나 반찬을 걸어두기도 한다니, 마을과 주민을 생각하는 그의 진심이 통한 것 같다.

최선남 이장은 주민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없었다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각자의 생계가 있음에도 마을 일에 발 벗고 나서주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계속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최선남 이장의 리더십과 주민들의 결집력은 마을을 낱알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 청소를 하고, 길을 걷다가 담배꽂초라도 눈에 띄면 바로 줍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불법 쓰레기는 내용물을 뒤져서라도 주인을 색출하고 내 집 앞은 손수 치우려고 노력한다. 때론 힘들고 귀찮을 수 있지만, 내가 사는 마을이 깨끗해지니 좋다며 거의 날마다 새벽 청소를 하고, 월 1회 마을 대청소를 거르지 않는 남문3리 주민들. 양양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이라는 자부

심에 남문3리 주민들의 어깨는 언제나 으쓱이다. 하지만 이런 남문3리 주민들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다. 환경미화원으로 오해하거나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로 착각하는 것이다. 마을을 위해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청소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듯하다. 처음에는 반감이 심했던 다른 마을도 남문3리의 사례를 통해 내 집, 내 가게 앞을 치우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마을 주민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으로 도약

주민 중심의 환경개선과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남문3리는 더욱 쾌적하고 깔끔한 경관으로 거듭나면서 도시재생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남문3리는 2020 주민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Level Up! 남문리 마을계획단'이란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크게 하드웨어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구분되며, 마을 공동체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3·1만세운동 역사 자원 발굴 및 상징 경관 조성, 주민 주도의 보행 환경 개선 리빙랩 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마을회관 2층을 수리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몄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사업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양양군 도시재생의 첫걸음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자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맞이한 주민들은 남문3리가 앞으로도 화합하며 깨끗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길 희망한다. 그들은 국경일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어 애국심과 애郷심을 일깨우고, 봄이 되면 갖가지 꽃들을 심어 마을 분위



기를 한층 화사하게 만들고, 이웃과 스스럼없이 마음을 나누는 미덕으로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남문3리는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하나의 마을이 아닌 여러 마을이 함께 오래 걸어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글·사진 : 편집부)

봄바람은 아직 차지만 참을 수 없는 춘삼월 사진으로 맛보는 양양의 음식이야기



긴 겨울을 탈피한 뒤끝의 첫 시작이라 어느 것 하나 반갑지 않을 것이 없는 춘삼월(春三月)이다. 설익은 쌀밥처럼 아직은 한껏 품은 향기가 없어 무덤덤해도 보는 것마다 곧 봄이다. 그렇다고 오래 머물러 주지 않을 봄 인줄 알기에 그 진한 봄날의 풍류를 환호하는 것 또한 어느 날 아침이면 불쑥 가고 없어 질 것 같은 봄날을 기억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세월 가듯 훌쩍 떠날 봄날을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음식에도 있다. 연분홍 진달래 꽃잎 살살 뜯어다 기름에 살포시 지져서 눈으로 먹던 '꽃전'도 있다. 어디 '꽃전'뿐 일까. 봄이면 태산 같은 세상음식들이 산에도 바다에도 들판에도 개락이다. 삶고 데치고 무치고 지져낼 봄의 음식들로 지천인데 그 중에는 양양 사람들이 신앙처럼 오랜 세월동안 먹어 온 음식도 더러 있다. 꼭 봄을 닮은 포근한 음식은 아니어도 그 동안 양양에서 양양 사람들이 먹어왔고 먹고 있는 훗날에도 또 먹고 있을 양양만의 음식을 기억하고 눈으로라도 먹고 싶어지는 낭창한 봄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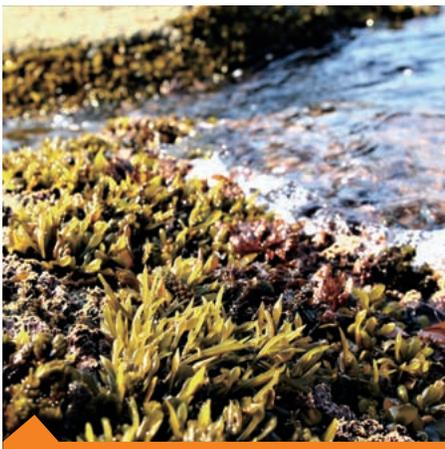
갯바위의 돌김



겨울 끝 무렵의 도루묵찌개



꾸떡하게 말린 도치



배고픈 시절의 보리해동



버림받던 재복



봄것이 맛있는 가지미세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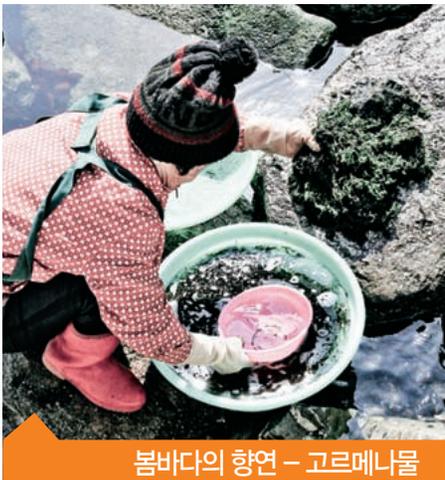
봄꽃처럼 단맛의 닭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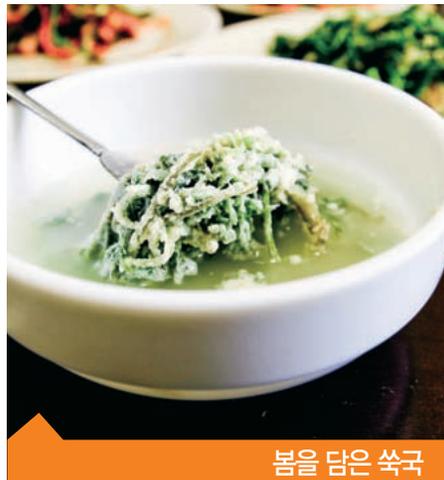
봄바다 향미의 자연산 섭



봄바다에서 뜯은 막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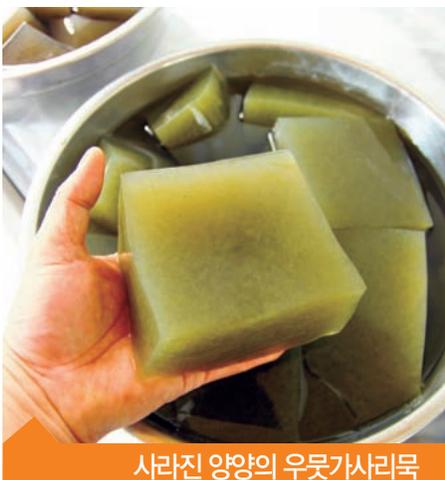
봄바다의 향연 - 고르메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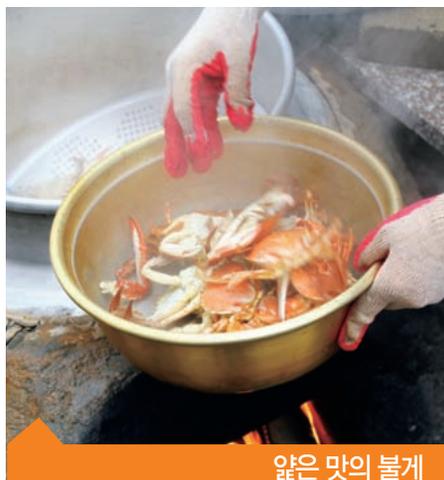
봄을 담은 썩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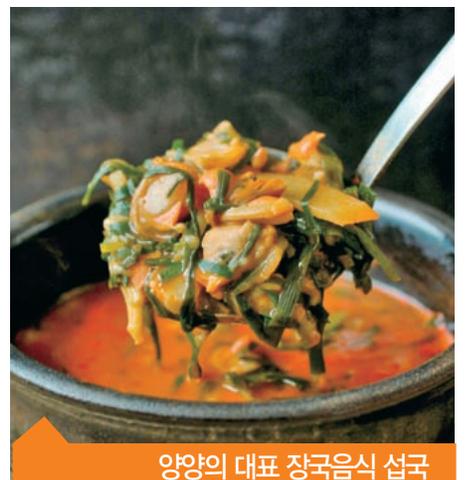
봄에 더 맛있는 참문어



사라진 양양의 우뚝가사리묵



얇은 맛의 불게



양양의 대표 장국음식 썩국



**양양군, 올해 상반기
1천180억원 신속집행**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의 재정 5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용률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과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성 경비와 균등 집행하는 법정운영비 등을 제외한 신속집행 대상액 2,142억원 중 55.1%에 해당하는 1,18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한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43개 통계목을 1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카-콜라도 인정한 짜릿한 관광지,
'양양 낙산사, 죽도해변 거리'**

코카-콜라가 국내 6개 도시들과 해당 도시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골목에 주목한 '코-크 시티 패키지'를 한정판으로 출시한 가운데, 그 중 양양 낙산사와 죽도해변 거리의 모습을 담아내 화제다.

이번 코카-콜라 시티 패키지는 코로나19로 마음껏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국내 6개 도시(양양, 서울, 제주, 부산, 광주, 경주)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와 각 도시의 '힙플레이스'로 꼽히는 관광지와 골목을 선정했으며, 낙산사와 죽도해변거리(양양), 광안대교와 해운대 포차 거리(부산), 무등산과 1913 송정역 시장(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코카콜라는 '이 맛 이 느낌, 양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코카-콜라의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 바탕에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로 낙산사 의상대와 죽도서핑 거리를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담고 있다.



**5년 만에 금빛 드러낸
양양 선림원지 보살입상**

2015년 10월 양양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16년 1월부터 진행한 보존처리를 통해 양양 금동보살입상의 금빛과 본래의 형태를 되살려냈으며, 제작기법과 제작연대를 규명했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양양 보살입상은 출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보살입상으로는 역대 최대 크기이며, 화려하게 조각한 대좌와 광배도 그대로 남아있어 출토 당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금동보살입상은 출토 당시 흙과 초록색 녹이 두껍게 뒤엉켜 있는 것은 물론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대좌와 분리돼 있었고 광배도 여러 조각으로 파손된 상태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4년여에 걸쳐 도금층과 단단하게 붙어있는 청동녹을 한겹 한겹씩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 도금층 위에 섬세하게 그려진 눈썹과 눈, 수염 등의 먹선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7~9세기의 절대연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804년(애장왕 5년) 동종이 제작되는 등 선림원이 활발히 경영되던 시기를 고려할 때 금동보살입상이 통일신라의 작품임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월리 강변권역 도심확장 속도 낸다

양양군이 남대천의 강변권역을 연계한 도심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양양읍 월리 대지조성사업이 새해 들어 본격화하며 속도를 낸다.

군은 양양읍 월리 산20번지 일원 2만3,284㎡의 부지에 주거용지 20필지와 공공업무시설 용지 2필지 등을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대지조성을 위한 분묘개장을 비롯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했다.

군은 올 상반기 중으로 공정률을 최대한 높여 8월 안으로 준공한 후, 연내 본격적인 분양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양양읍 월리에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은 지역에서 가장 중심부에 자리한 전원주택단지로서 강변권역과 연계한 도심확장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양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 돌입

양양군이 지난 3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본격 시작했다. 양양군 보건소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5개소에 근무하는 65세 미만 종사자 123명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백신은 2월 25일 양양군에 도착했으며, 방문 접종은 보건소가 1개 기관을 맡았고, 나머지 4개 기관은 축탁의 계약을 맺은 중앙외과와 양양정형외과가 각각 2개 기관씩을 나눠 방문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 부작용에 대비해 자체 앰블런스 대기를 비롯해 양양소방서 119 신속출동, 강릉아산병원, 동인병원, 속초의료원 등 협력체제 구축으로 환자대응과 응급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군 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18세 이상 전 군민의 70%인 1만7,600명의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4월 안으로 양양일출예식장에 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설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탄력과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른 양양지역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양양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허가민원실 지적정보팀으로 점검반을 편성,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가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2018년 6,224건(토지 4,923, 건축물 1,301)에서 2019년 5,951건(토지 5,143, 건축물 808), 2020년 6,961건(토지 5,366, 건축물 1,595)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이와 함께 양양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낙산도립공원 해제 등 영향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2018년 36개소에서 올해 42개소(2월 기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양양물, '설맞이 특별 할인전' 전년대비 142% 매출액 증가

2011년부터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가 직거래 쇼핑몰인 양양물(www.yangyang-mall.co.kr)의 매출액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물은 지난 1월 15일 부터 2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해 75,000천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동기간 기준 31,000천원보다 142% 증가한 것으로 양양물의 인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양양물은 대표 농특산품인 질골연화두부, 송림 조산한과, 생표고버섯, 송이·표고버섯네비아니, 새싹인삼, 낙산배, 배즙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제철상품의 경우 산지에서 당일 수확·신속 배송으로 신선도를 높이고, 엄격한 물품검수,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여 양양물의 인지도가 상승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할인행사는 관내 중소기업체, 양양물 구매고객 대상 등 홍보 문자발송과 서울YMCA와의 특판 행사 진행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친 것도 판매증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양양물 입점업체는 120개농가, 150개 품목으로 군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유도하는 등 양양물을 통해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 등 전략적인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옛 농기구 버리지 말고 연락주세요!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총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기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이 양양농업의 역사적 유산을 발굴하고, 농업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양양농경문화전시관'을 2024년 개관한다고 밝혔다.

농경문화전시관은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건물 2층(598.7㎡)에 개관 예정으로, 양양농업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농업복합문화시설로 활용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양양군 농업기술센터는 2021년을 농경문화전시관 준비 원년의 해로 삼고, 2023년까지 전시물품 수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관내 모든 농가에 농경문화전시관 개관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농기계, 농기구, 양잠기구, 농촌생활용품, 사진, 고서 등 농가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기증 받을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농가보유 물품을 파악하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 하는 등 많은 옛 물품이 기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사계절 관광지로 도약하는 인구해변



인구해변의 1940년대 모습과 현재 모습입니다.
 한적했던 평범한 어촌마을이
 현재는 수많은 서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서핑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서핑 비치로드 사업 및 서핑 특구 조성사업이 한창으로
 서핑 테마거리와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사계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구해변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양양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체 27개 부서로부터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부서 목표 및 추진전략, 올해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했으며, 의원들은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및 의견제시를 통해 올 한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조



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재철 의원, 간사 박봉균 의원)를 구성하여 의원발의「양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양양군 고문번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월 25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의성 의장의 개회사와 2021년도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양양군수의 총괄 제안설명회가 있었다. 김의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불안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생우선의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2월 15일 의장실에서 제253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김택철 의원, 김규홍, 김기원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선임됐다.

김의성 의장은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직을 수행함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양양군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양양군수는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김의성 의장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김의성 의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문화원이나 일출예식장 등 문화예술 시설들이 사업 추진 시 소외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종합예술다운 조성 등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

는 공모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주길 당부하였으며, 퇴직을 앞둔 군 부대 간부들과 다양한 연령의 인구층이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군인정착지원 조례 활용 및 청정 양양 · 건강한 양양을 필두로 한 양양군 이미지 홍보를 기반으로 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종석 부의장 |

평생교육의 중요성 및 사회적 · 신체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조

이종석 부의장은 초중고 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활발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신규 임용자 채용 시 사례교육을 통한 공직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사유유무와 별개로 매년 잔디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을 관내 아이들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사업 추진시 이동약자 통행로 확보와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제철 의원 |

마이삭 태풍피해 복구 철저

고제철 의원은 지난 마이삭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읍면 농수로 및 배수로 등에 대한 정비가 누락없이 꼼꼼히 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투적이지 않은 차별화된 동기 부여를 통해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군정 추진과 함께 우리군 도시계획 수립 시 인구유입정책 및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청사진 성립으로 명품양양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우섭 의원 |

현남지역 현안사업 추진 독려

김우섭 의원은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나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불협화음이 발생치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계속된 의견 교류를 반드시 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례반복적인 군정홍보에서 탈피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참신하고 다양한 루트의 홍보방안을 기획하여 인구증대와 관광객 유입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봉균 의원 |

효율적인 청년창업 지원 방안 마련

박봉균 의원은 우리군 주력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어소상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주길 강조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 시 창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의욕을 고취시켜줄 효율적인 관련 정책 추진으로 사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게 운영해 주길 당부했다.



| 김택철 의원 |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 독려

김택철 의원은 우리군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한 만큼, 인근 경찰서 · 소방서 · 군부대 등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사건사고 예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효율성있게 운영해 주길 당부했다. 또한 군의 각종 사업 추진시 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각도로 국도비 확보 가능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군 재정부담은 완화하면서 경제성 높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 김귀선 의원 |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김귀선 의원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꾸준히 이뤄져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짐과 동시에 생활복지사들의 근무환경 또한 효율적이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자녀 상담 시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양양은 도원경의 별천지가 아니런가?

일찍이 양양의 선인들은 양양 땅에는 동남으로 60리 구간에 이상향[(理想鄉) Utopia]이 전개되어 있다고 예언한 글을 양주읍지(襄州邑誌)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하여 놓았다.



회룡리 마을 전경



영랑호 전경

● 양주읍지 고적 편에 실려 있는 ‘회룡굴’

원문 <回龍窟:在府六十里吳晚翠億齡有友人同在洛下一日告別而去十年不知去處吳公爲關東方伯巡過海上其友人艤舟於永郎湖上遂與之邂逅吳公曰君方住何處答曰吾家在於彌矢嶺底華岩寺之洞口又在於襄陽府四十里回龍窟吳公遂與之偕往捫蘿穿石入一窟中日月明朗第宅宏麗且有歌童舞女吳公曰君何力辦此答曰如此者亦數十區其後吳公再到尋覓終不知其處云詳見辛參奉敦復鶴山雜錄未知其處>

번역문 <회룡굴은 부에서 60리에 있다. 만취 오역령이 벗과 같이 지내다가 하루에 이별하고 떠나니, 십년 동안 거처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오공이 관동관찰사가 되어 해상을 순시하며 지나다가, 우연히 영랑호 배를 대놓은 곳에서 벗을 만나게 되었다. 오공이 “그대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벗이 답하기를 “내 집은 미시령 아래 화암사 동구인데 또 양양부에서 40리 지점 회룡굴이라” 하니, 오공은 그를 따라 함께 간다. 땀이 땀을 휘어잡고 돌을 헤치며 한 굴에 들어서니, 해와 달이 맑고도 밝고, 저택은 크고 화려하며 또한 남녀 아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맞이한다. 오공이 묻기를 “그대 무슨 힘으로 이를 마련하였는가” 하니, 벗은 “이 같은 것이 또 수십 곳이라” 대답한다. 그 후에 오공이 재차 와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곳을 찾지 못하였다. 참봉 신돈복의 학산 잡록을 상세히 들추어 보았으나 그곳을 알 수가 없었다.>

이 글은 조선 숙종 연간(1674~1720)에 대사성, 대사헌, 병조판서, 강원관찰사,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특히 1695년 1월 28일 강원관찰사를 사임 할 때에 숙종대왕으로부터 “일편단심이 빛나다(一片丹心炳)” 시 한편을 하사 받은 오도일(吳道一)이 남긴 글이다.

이와 유사한 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天地篇) 지리류(地理類) 낙토가작토구변증설(樂土可作菟裘辨證說)》 등 몇 편의 글이 전해진다.

이 글에 등장한 인물 오역령은 선조조~광해군조(1567~1623)에서 대사헌, 형조판서 등 조정의 고위직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 양양 땅 60리에 회룡굴과 같은 별천지가 수십 곳(數十處)이라 하였다

선견지명이 있는 옛 어른들의 예언은 우리 후손들이 반추(反芻)하면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적극 방도를 찾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광영(光榮)을 위해서 설계하고 전력투구(全力投球)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약진 도상에 있는 우리 양양의 군세는 미약하고 인구는 비록 적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망하는 고을이 아니겠는가?

1. 하늘과 바다 산 하천 대자연의 풍광은 정말 빼어나게 아름답다.
2.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다.
3. 양양국제공항 개설로 이미 지구촌의 하늘길이 열려있다.
4. 일출의 명소 60리 청정해변은 사철 인파가 출렁이며, 죽도를 위시한 모든 해변에 서퍼(surfer)들이 몰려든다.
5.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우선 전국의 누구나가 양양을 찾는다.
6. 동해북부선 철도가 부설되면 앞으로 남북교역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7. 이미 양양남대천에 르네상스의 서막이 열렸다.

● 우리 양양군민의 과제

우리 군민 모두는 각자가 하는 일과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때 회룡굴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열릴 것이며, 민생의 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양양의 변명과 약진을 위하여 군민의 화합이 지상과제이다.

※ 『조선왕조실록』에 “숙종24(1698) 7월 19일 공조참판 오도일(吳道一)이 면직을 원하자 오도일을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보직하도록 명하다” 라는 기사가 있으며, 1700년부터 대제학, 한성부판윤을 역임한 후 병조판서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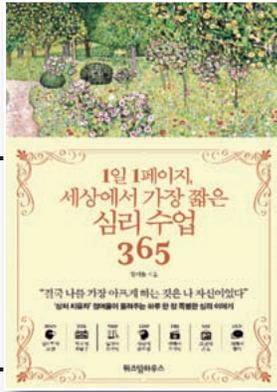
오도일 초상화



이달의 책이야기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

정여울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1. 2월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상처 치유자 정여울이 들려주는 하루 한 장 따뜻한 심리 이야기

인문교양서의 판도를 바꾼 ‘1일 1페이지’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자 국내 작가의 첫 책인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가 출간되었다. 진솔하고 섬세한 문체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온 작가 정여울의 안내로 심리학의 세계를 여행하는 이 책은 불안과 우울의 늪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을 위한 폭넓은 지혜와 따뜻한 치유의 모음집이다. 심리학부터 책, 일상, 사람, 영화, 그림, 대화까지 7가지 주제를 통해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키워드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제 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365가지의 특별한 ‘힐링 액션’을 소개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오늘날, 진짜 나를 만나고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고 나와 타인, 나와 세상 역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루 1분, 이 책을 통해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깊숙한 내면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성장의 도구가 될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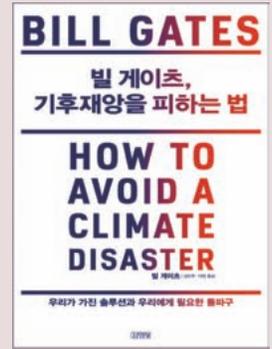
■ 지나간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 삶에도 지루한 부분, 때로는 건너뛰고 싶은 부분, 삭제하거나 편집해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조금 더 성숙해진 나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토록 아파하고 방황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던 그 시절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방황하던 시간, 일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 답답하던 과정들은 오히려 내 삶의 그림자이자 소중히 꺼안아야 할 내 삶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생의 디테일을 한순간도 남김없이 한 올 한 올 즐길 줄 아는 것, 지루한 부분도 서글프고 힘겨운 부분도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내게는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길, 더 풍요로운 나 자신의 뿌리와 가꾸어지는 길이였다.

-(066 일상의 토닥임: 과정의 기쁨을 온전히 향유하기_76쪽)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빌 게이츠 지음 | 김민주, 이엽 옮김 | 김영사 | 2021.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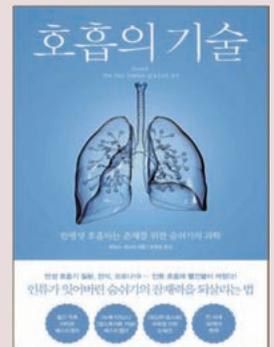


빌 게이츠가 10년간 올인한 바로 그 주제!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근본적인 해법

혁신적 엔지니어이자 실용적 환경주의자 빌 게이츠가 1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마침내 공개하는 기후재앙 극복 해법. 목표는 명확하고 계획은 구체적이다! 매년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510억 톤을 2050년 선진국부터 ‘순 제로(net zero)’로 만들 것. 탄소 문명을 청정에너지 문명으로 바꿀 ‘기술-정책-시장구조’를 만들 것. 성장과 지구가 양립 가능한 계획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호흡의 기술

제임스 네스터 지음 | 승영조 옮김 | 북트리거 | 2021. 2월



만성 호흡기 질환, 천식, 코로나19 ... 인류 호흡에 빨간 불이 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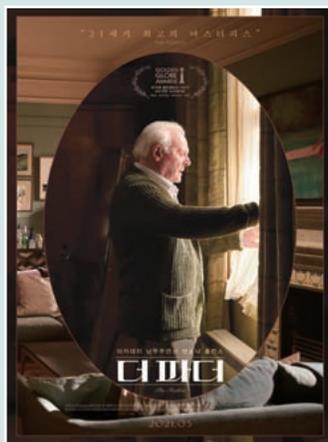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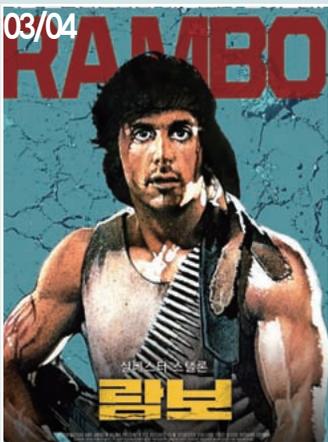
인류가 잊어버린 숨쉬기의 잠재력을 되살리는 법

산업화 이후 인간은 호모(Homo) 역사상 최악의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천식, 자가면역질환 등 수많은 질병은 잘못된 호흡과 연관이 있다. 왜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상에서 코가 가장 딱 막힌 종이 되었을까? 우리의 동굴 속 조상들은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사는 현대인과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 호모 종이 수십만 년 동안 코와 입술과 폐만으로 완성한 찬란한 기술을 되살리는 법은 무엇일까? 저널리스트 제임스 네스터는 스탠퍼드대학에서의 자학적인 호흡 실험을 비롯해 수천 년에 걸친 의학 문헌과 최근 호흡기학, 심리학, 생화학, 생리학 분야의 최첨단 연구를 바탕으로 호흡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다.

글,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희망실버하우스	1명	시설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182만원 이상
설악환경산업(주)	1명	대형 암륜운전원	08:00~17:00 (주5일)	월220만원 이상
	1명	건설폐기물 선별원	08:00~17:00 (주5일)	월185만원 이상
디모테오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15:00~19:30 (주5일)	월106만원
네오팜	1명	생산직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농업회사법인 (주)설악산그린푸드	1명	식품연구원	09:00~18:00 (주5일)	연2,180만원 이상
주식회사 오션블루	11명	음료제조 기계조작원	08:30~17:30 (주5일)	월250만원
주문진영숙이네	1명	커피파리스타	09:00~17:00 (주5일)	시급 8,720원
초원환경산업(주)	1명	굴삭기기사 (경력자)	08:00~18:00 (주5일)	월250만원 이상
	1명	건설현장정리원 (폐기물 선별)	08:00~18:00 (주5일)	1일 11만원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1명	조리원	교대근무 (6사~18시)	월211만원
(주)남양인더스트리	2명	생산직 (절곡1명, 용접1명)	08:00~17:30 (주5일)	월190만원
	1명	생산관리 (카드기능자 우대)	08:00~17:30 (주5일)	월190만원
(주)성심레미콘	1명	레미콘 품질관리기사	08:00~18:00 (주5일)	연2,600만원
(주)대명호텔앤리조트 (양양 솔비치)	7명	조경 일용직	08:30~17:30 (주5일)	1일 72,000원 ~75,000원

2021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월별	기 간	접수기간	수 강 내 용
4월	3. 29. ~ 4.22. 주간(화,목) 야간(월,수,목)	3. 22. ~ 3. 26.	(주간) 한글 기본&활용 및 스마트폰 활용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5월	5. 3 ~ 5. 27. 주간(화,목) 야간(월,수,목)	4. 26. ~ 4. 30.	(주간) 엑셀 입문반 및 스마트폰 활용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강의 및 실습 병행

- 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 인원 : 15명(선착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 시간 : (주간반) 10:00~12:00(화,목) / (야간반) 18:30~20:30(월,수,목)
- 신청방법 : 전화(☎033-670-2116)
-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 적십자 회비 추가모금 안내

- 모금기간 : 2. 1. ~ 4. 30.(3개월)
- 회비모금 목표 : 32,000천원 ※ 2020년 32,500천원
- 모집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 ※ 제외대상 : 만 25세 미만 및 만 75세 이상 세대주, 만 30세 이하 단독 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 납부권장금액

구분	세대주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종교단체	교육기관
납부 기준액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 700,000원	50,000원	30,000원~ 500,000원

- 납부방법
 - OCR :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비, CD/ATM기
 -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등)
 - 인터넷(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내 후원참여 등)
 - 가상계좌, 스마트폰, 편의점 이용, 신용카드 등
 - 공동납부 : MICR(무기명지로용지에 단체 또는 마을단위 일괄 납부)
- 회비 납부혜택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제혜택
 - ※ 세대주 : 자동반영, 개인사업자·영리법인 : 적십자사에 별도 발급요청
- 회비모금결과 공개(회비모금 종료 시)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공개, 회원 요청 시 납부내역 확인
 - ※ 2021년도 적십자 회원모집(연중) :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문의 (☎033-256-9510)

2021년 농지은행사업 시행계획 알림

- 신청기간 : 2월 ~ 예산 소진시
- 사업내용
 - 농지연금지급 : 만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
 - 경영회생자금지원 : 농가 부채로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상담 및 서류접수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033-630-0113, 630-0122)

2021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3월 ~ 4월
- 대상
 -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인 만 65세 이하 성인 선착순 90명(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전검사 후 확정)
 - ※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자이거나 약물복용자는 대상이 아님 주의
 - 대상 : 만 19세 ~ 65세 양양군 거주자 및 양양군 소재 직장인
 - 건강위험요인
 - ① 혈압 - 수축기 130mmHg 이상 - 이완기 85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00mg/dL 이상
 - ③ 허리둘레 - 남 90cm 이상 - 여 85cm 이상
 - ④ 중성지방 150mg/dL 이상
 - ⑤ HDL 콜레스테롤- 남 40mg/dL 미만 - 여 50mg/dL 미만
 - 우선선정 기준 : 신규참여자 및 건강위험요인 개수가 많은 사람 우선 선정
- 필수참여요건
 - 스마트폰 소지자이며 양양군 소재 직장인 또는 거주자
- 참여혜택
 - 3회 무료 건강검진 제공 및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활동량계(스마트밴드) 및 체성분계 등 제공
 - 우수 참여자 스포츠 용품 등 인센티브 제공
- 문의 및 접수 :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033-670-2543)

양양군 교류 도시 및 기관 할인혜택 안내

도시 및 기관명	대상	기간	방법	혜택
인제대학교 일반학생	양양군민	연중	신문증, 인제대학교에서 발행된 교외지역의 할인혜택을 제공	인제대(교외) 20%, 비교외(교외) 10%, 중점분야 10% 합인, 합정 시 별도 우대 혜택 등 별도 시 별도 협의 동서간교류지원사업 기본 할인 20%, 합인 할인 10% 할인, 비교외(교외) 할인 : 비교외 일부 10%, 합인로 일부 10%, 합인로 일부 10%, 합인로 일부 10%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경희의료원	양양군민 본인 + 동반 3인	2021. 3. 1. ~ 2022. 2. 28.	신문증, 우편통제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시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양군민 본인 + 동반 3인	2021. 3. 1. ~ 2022. 2. 28.	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문증 제시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경기도 양주시	양양군민	연중	신문증 제시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합인로 일부 10% 합인

□ 할인혜택 문의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서무담당(☎033-670-2130)

정보꾸러미

C02 줄이기, 우리집부터 시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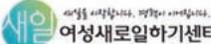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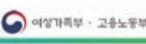
-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가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1)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www.cpoint.or.kr)
2) 방문 신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3) 준비물 - 신분증, 고지서(고객번호), 계좌번호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연 2회 산정)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10%	5,000P	750P	3,000P
10~15%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탄소포인트 1P 당 1원의 인센티브 지급
1) 지급주기 : 연 2회(6월, 12월)
2)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주소 불일치, 계좌정보 오류 등의 사유 발생시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219

2021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자격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② 생활형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학생
 - ③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장학금 지원 : 분기 1회 지급
 - 초등학생(분기 20만원), 중학생(분기 30만원), 고등학생(분기 40만원)
 - 3월 신청 : 4회 지급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
 - 4월 신청 : 3회 지급 (5월말, 10월말, 11월말)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3. 2 ~ 4. 30까지 (4월 20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방문 또는 우편 신청)
(24404)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70, 만호빌딩 3층 지원업무담당자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033-261-5000, 010-8546-7459

2021 취업희망여성 직업교육훈련생모집

용입코딩지도자 양성과정

모집인원 20명
모집기간 3.23(화)까지
교육기간 '21.04.06~05.28
교육시간 09:00~13:00
(30일/120시간)
-----교육내용-----
소프트웨어(코딩) 전문인력 양성교육
· 코딩 이론 및 실습
· 비평론 수업 교육법 및 모의 수업 실습

SNS 농산물
홍보마케팅창업과정

모집인원 20명
모집기간 5.21(금)까지
교육기간 '21.06.01~06.30
교육시간 09:00~13:00
(15일/60시간)
-----교육내용-----
SNS채널 연계 및 활용방법
· 블로그마케팅 전략 블로그 포스팅
· 홍보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제작

※ 상기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취업희망 의사가 분명한 미취업(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방문접수(신분증지참) 구직신청서, 훈련참가신청서 작성

■ **선발·특전** 면접진행 후 교육생 선발·국비지원, 사후관리서비스지원

■ **자부담금** 5만원(취약계층제외) 교육수로 시 한금

참여자준

- 계약일 기준 미취업지(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자영업자는 연간소득 8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된 통으로 확인)
- 만, 특수요사, 공로장 공시자료, 보임제자는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학점은행제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간대학(원) 재학생 중 계약일 기준
- 미취업 상태인 경우(고용보험 가입 이력서로 확인)
- 고졸 미취업여성 및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대학, 대학원생)

참여 제한

- 직업훈련 연속 2회 참여
- 자영업자 중 창업 1년 미만으로 운영서를 발급 불가능자
- 세입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연도 1년 1과목만 참여 가능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화 및 내방상담 문의
강원도 양양군 읍 인민1길 35 (양양군여성회관 2층) 670-2890~3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을 아시나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변호인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강원도

"역세권 개발과 함께"

새로운 비상!

